

2004년 초에 국내 축산농가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하였을 때에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조류독감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공언하였던 정부가 조류독감주의보를 발령하면서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감염되고 그 중 44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조류독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독감은 예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왔다. 1173년에 유럽에서 독감이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2,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독감의 원인 바이러스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후 10년 내지 40년의 주기로 세계적인 독감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마지막 대유행은 1977년에 있었다. 이런 대유행 사이에도 소유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국내에서도 매년 겨울철엔 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밝혀져 있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황인종 중 한



불자 세상보기

김익석  
동국대 의대 교수

조류독감 공포, 해답은?

국인과 일본인이 다르듯이 매년 조금씩 변화하면서 끊이지 않고 독감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이 독감에 걸리거나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성격이 약간 변해도 아주 큰 유행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종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함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조류독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새들에게 유행하는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증거가 되어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34명이 조류독감에 걸려서 그 중 23명이 사망하였다.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닭이나 오리, 기르거나 도살하는 등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따라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일반인들이 음식 등을 통해서 조류독감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로 발생하였으나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공식적으로 없었다. 조류독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은 우리가 닭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1918년에 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가져왔던 스페인독감처럼 인류를 위협할 돌연변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조류독감주의보가 발령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반인들은 외출 후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지키면 충분하다. 대중매체를 통해 조류독감 유행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 지역에서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재 접종 중인 독감예방접종이 조류독감을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 종사자의 경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다. 겨울철에 독감과 조류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게 될 때에 두 질환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만나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공연히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기피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많은 돈이 드는 일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조류독감 백신개발, 예방 및 치료 약제 확보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자의 눈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종회 계파를 초월하여 화합 속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어지던 과열, 혼탁의 분위기가 종단의 위상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한 시각에서 보면 승가에서 화합을 말한다든 자제가 모순이다. 승가란 말 자체가 화합중(和合衆)·화합중(和合僧)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화합은 승가 본연의 모습이다. 조계종은 지금 그 잃어버린 과거를 미래상으로 그려가고 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합의 추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추대와 경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식 일가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일 정도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양자택일이 핵심 과제일 수는 없다. 미리 결론 삼아 말하자면, 어떤 방식이든 부처님 법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과해서 안 될 것

'청정선거'를 기대한다

은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합의는 아합과 근친관계이기 쉽고, 경선도 합법적 배타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갈등의 소지는 안고 있다.

중요한건 선거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화합과 청정이라는 승가 본연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다. 세속적 의미의 공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제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실 종단의 중진급 스님이면 누구나 총무원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를 목표 지향으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목표는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적(圓寂)이 선포하게 보여 주었다. 장기 기증과 보혈의 수혜자가 조계종 복지재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국민적 감동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상의 아픔에 가장 민감하고 또한 의연한 그런 어른을 갈망하고 있다.

앞으로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시대의 사표여야 한다.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여야 하고 희망의 메신저여야 한다. 누가 되든지 이런 일을 할 어른을 모신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한다면, 종단화합은 물론이요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윤재학(이동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침묵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사와 가축 기르기에 열심인 자에게는 씨앗과 사료를 지급해야 하고, 상업에 열심인 자에게는 자금을 지급하고, 관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생활에 합당한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 <아함경>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조계종 총평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기고문 중 일부 표현이 석 달째 우리 사회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정·재계로 이념적 논쟁이 불이 붙었다.

특히 김상철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올바른 시장 경제 교육과 시장경제 이념이 뿌리내리기 위해 앞으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학수업 내용 등을 참고하도록 경제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동국대 이사장 현태 스님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강 교수를 면직시키고 싶지만 현행 교육법상으로 걸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불교계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불교계 대학의 한 교수가 학자적 소신 때문에 철창에 갇힐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파키스탄 지진피해에 관심

파키스탄 동북부 인도 국경 인근에서 10월 8일 오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엄청난 자연재난을 당한 파키스탄으로부터 전해지는 피해규모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종교계가 최근 강진으로 인한 큰 피해를 본 파키스탄 돕기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정도회까지만 11일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을 급파해 파키스탄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잇따라 조계종도 선의에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종교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적·보편적 흐름이었다. 각국이 재난 구조와 복구 지원에 국경을 초월해 나서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대승보살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면, 지구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파키스탄 지진피해자들에게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사한 국제이티에스 김경희(한국JTS 사무국장)

승려교육은 '선교육 후덕도'로

'현대불교' 547호 특집 '불자청정성' 기사 가운데 교육문제를 짚은 기사를 보

면제 상당한 공감을 했다.

현재와 같은 한국불교의 절충식 '선덕도 후교육' 체계는 문제점이 참으로 많다. 먼저 계를 주고 나중에 계를 주는 일은 부처님 당시에는 가능했던 일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방법을 답습하는 제도는 시대적인 착오다. 다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은 철저한 교육 후에 성직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최소 6-8년 교육기간을 거친다.

이에 비해 조계종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일단 스님이란 호칭을 받는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소한 6년 정도는 마치고 스님 호칭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세상과 동떨어져 중생을 구제할 힘을 갖추지 못하면 타 종교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조계종 승려(부다뉴스)

'짚지' 포교 그만 하길...

얼마 전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대구 팔공산으로 참배기도를 갔다. 간만에 속신을 씻을 겸 바로 아래 있는 사람의 요사에 잡자리를 마련해 한 침을 곤하게 자는데, 누군가 불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험한 소리로 고성을 질러 잠을 섰다. 소리를 들어보니 신도들이 잠을 자는

객방에 불을 안 넣어 주는 사중을 향한 화염이었다.

한참 후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아침 공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찬으로 나온 찌자가 그냥 찌자가 아니라 소태탕이였다. 찌자와 실망을 반찬 삼아 밥 한 그릇을 먹으며 간밤에 방에 불 안 넣어준다며 난리친 열방 일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절의 인심이 어딘가 모르게 곱아아닌 인심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그 절은 한국에서도 가장 많은 불자들이 찾았다는 명절인데도 말이다.

지금도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 시대도 아닌데 불자들이 탄식 같은 이런 소리를 신문 기고란에 기고해 해야 하는 가하는 망설임도 있었다. 현대 사회는 구출대상의 백성도 없고 경제발전의 힘을 얻어 밥술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 자체를 따지는 시대다.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사찰 운영이 따랐으면 한다. 이웃종교인 기독교도 선교를 할 때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쓴다. 불교는 보시를 들고 찾아오는 불자들에게조차 '무(無)대접'이라는 말이 생각나 불자로서 씩씩한 마음이 앞섰다.

불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사람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극기훈련(?) 같은 현실을 그대로 고집할지 안타깝다. 리우생(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연대' 민평

심민섭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2005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4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 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 4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성적증명서
사진 4매(반명함판)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2005년 12월 4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2005년 10월 20일(목) ~ 11월 10일(목)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2006년 1월 10일(개별 및 학교별 통지)
응시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수계첩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 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